

“초원 모습 그대로야... 내 고향 사바나 같아”



서울 동물원 수의사가 지난 5월 17일 기린 우리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기린의 습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세계 동물원 탐방기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은 단연코 몸길이 30m·몸무게 160t의 대왕고래 또는 흰긴수염고래다.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기록을 가진 동물을 사육하는 동물원은 세계의 최고라고 불릴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다.

동물원의 평가 요소는 대략 10가지다. 규모·전문인력·연간방문객·보유동물종수·역사·국제적활동·세계적 희귀종·대표관람시설·종보전 및 교육활동·동물윤리복지기준 등이다. 동물원도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진화하지 않으면 스스로 도태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동물원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그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잠시 들여다 보자.

우선 싱가포르 떠나보자. 싱가포르동물원은 세계 최고의 열대우림 숲 재현한 울타리와 조형시설물이 없는 자연서식지처럼 꾸며져 있다. 전시컨셉이 열린 동물원(Open zoo)이다. 울타리 없는 나무사이로 오랑우탄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침식사를 하는 프로그램은 단연 인기 최고다.

6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으로 된 동물공연장에서는 하이어나·늑대·수달이 등장해 관람객의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물론 이 동물들은 긍정적 강화훈련이라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훈련을 한다고 한다. 따라서 동물보호단체의 비난도 없다고 한다.

독일로 가보자. 동물분야 사전 중 가장 유명한 고전으로 지맥(Grzimek's) 대백과사전이 있다. 이 지맥이 동물원장으로 TV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진 독일 프랑크푸르트동물원도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한다. 2차 세계대전(1945년) 이후 재개원하면서 동물대백과사전이 출간되고 100마리 이상의 영장류 번식에 성공했다. 또한 야생동물보전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따를 곳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다.



슬픈 동물원

<3> 서울 동물원·에버랜드 가보니

호랑이 숲 등 실제 서식지처럼 리모델링
동물복지 개념 도입... 희귀동물 출산율 증가
수륙양용차로 사파리 투어... 동물과 교감

“여 저기 백두산 호랑이다. 야생에 있는 모습 그대로네...”

지난 5월 17일 오전 11시30분경 경기도 과천시 서울동물원 백두산 호랑이숲. 야외방사장은 평소 우리 외곽의 산비탈에 조성돼 있었다. 면적은 2600㎡(786.5평)로 기존 1300㎡(393.3평)보다 두 배 이상 넓어진 상태였다.

서울동물원 측이 올해 초 백두산호랑이숲 조성 사업을 하면서 야외방사장 안팎을 호랑이의 실제 서식지에 가깝게 꾸미면서 면적을 넓힌 것이다.

또 야산의 바위 등지에서 휴식을 취하는 호랑이의 습성을 감안, 무게 3~4t의 돌바위도 곳곳에 들여 놓았고, 호랑이 서너 마리가 동시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물웅덩이도 보였다. 높이 5~6m의 소나무도 곳곳에 심어져 있었다. 마치 야생에 사는 호랑이를 만난 듯 관람객들은 호랑이 우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호랑이 숲은 관람객 편의위주가 아닌 철저히 호랑이의 관점에서 조성돼 있었다. 기존 야외방사장과 달리 호랑이 숲은 자신이 원치 않으면 스스로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 많았다. 또 관람중 만일의 사고에 대비, 높이 6~7m의 펜스를 설치해 관람객들의 안전도 고려했다.

제1아프리카관 그물무늬 기린 우리도 여는 동물원의 우리와 달랐다. 면적 3305.7㎡의 우리 바닥은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흙 바닥이었다. 기린들은 마치 사바나 지대의 초원을 걷듯 사뿐히 걸어들었다.

우리 안엔 아카시아 나무를 연상시키는 높이 5m의 나무 형태의 파라솔이 설치돼 있었다. 파라솔 곳곳엔 과일이 걸려 있었다. 키 5m 이상의 기린들이 자신의 습성대로 먹이를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일종의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 중 하나인 것이다.

관람객 우승호(39)씨는 “철창에 갇혀 축 처져 있는 기존 동물원과는 아주 다르다. 마치 사파리에 온 듯 동물의 습성에 맞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만족스러움을 표했다.

국내 대표적인 동물원인 서울동물원은 보여주지만 일방향의 동물원이 아니라 동물들이 관람객과 함께 호흡하는 동물 위주의 동물원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날 현재 서울동물원 보유 동물 수는 333종·2582마리. 천연기념물은 19종·270마리이며, 멸종위기종은 243종·1885마리다. 서울동물원은 사육·전시·교육·종보전연구 등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는 기존 다른 동물원과 비슷한 기능과 역할이지만 서울동물원에선 동물 복지 개념을 도입, 각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복지기준 등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이 다른 동물원과 차별화된 점이다.

서울동물원은 ▲2009년 신유인원관 오픈 ▲2010년 열대조류관 리모델링 ▲올해 호랑이숲 및 소동물관 리모델링 등 동물 복지 개념을 도입한 환경을 점진적으로 바꾸고 있다.

서울동물원이 지난 2009년부터 동물전시 개념의 동물원에서 탈피해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한 이후 멸종위기종에 처한 희귀동물들의 출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동물원 지난 2012년 1월~5월까지 5개월간 태어난 동물이 총 34종·111마리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3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

6인승 SUV 차량의 지붕으로는 키 큰 기린이 먹을 것을 찾아 내려왔다. 얼룩말은 바로 눈앞에서 관람객들을 지켜봤다. 마치 사파리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킬 정도였다.

지난해 첫 개장시에는 40인승 대형 수륙양용차를 도입,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 이어 지난달 15일부터는 6인승 소형 수륙양용차를 이용하는 스페셜투어가 시작했다.

수륙양용차를 타고 둘러보는 방식으로 개장 이래 누적 관람객이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말 그대로 스페셜한 차량을 추가로 투입했다. 스페셜투어 차량은 길이 5.6m, 폭 1.9m, 높이 2.1m, 무게 3.2톤으로 관람객 6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차량의 천장과 창문이 모두 개방돼 있고 좌석에서 일어난 채 관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생생하게 동물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운전기사를 겸한 사육사로부터 동물들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기린·낙타·코뿔소 등 초식동물에게 먹이도 직접 줄 수 있다.

호랑이·사자 등 맹수를 관람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소형차량답게 사파리 구석구석을 둘러볼 수 있다. 스페셜투어의 체험시간은 30분으로 대형차 투어보다 2배 이상 길다. 에버랜드도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주는 동물 위주의 동물원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서울동물원 관계자는 “동물 복지의 가치가 강화될 때 인간의 복지는 더 강화될 수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복지 강화는 세계 추세”라고 말했다.

/경기도 과천=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동물을 위한 동물원 꿈꾼다

동물원 입구에는 세련된 분위기의 매표소 옆에 미리 자연을 맛보게 하는 원숭이 전시장이 마련돼 있다. 가장 새로운 동물전시장인 곰사의 외부 방사장은 마치 넓은 숲속에 한가롭게 자유를 즐기는 곰을 보는 듯한 환경을 느낄 수 있다.

실내 사육장의 2층은 18개 방으로 된 중형 고양이과 동물전용의 검역장이 마련돼 있다. 국내엔 야생동물 전용 검역시설이 없다. 호랑이·사자들이 수입되면 이곳에서 검역을 받는다. 대만의 경우 타이페이의와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대만동물원내에 전용 검역장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스위스 쥐리히 동물원도 검역시설이 있다.

프랑크푸르트 동물원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프랑스 파리 동물원으로 향했다. 직접 자신의 차를 몰고 들어가 동물을 바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이다.

이곳은 마치 아프리카 초원에 와있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곳이다. 이곳에는 걸어서 관람하는 동물전시장도 따로 마련돼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유리로 만들어진 관람통로 안에 들어가 호랑이와 사자를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동물원에서도 꼭 이 같은 관람시설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한 뒤 신사의 나라 대영제국의 런던에 도착했다.

유난히 공원과 햇볕을 좋아하는 영국에는 리젠트파크 공원 안에 런던동물원이 있다. 동물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동물원 면허를 받아야하고 5년 후에는 다시 갱신을 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동물원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뜨겁다. 런던동물원은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동물원이다. 이 동물원은 동물원학연구소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을 가지고 있다. 매년 전세계동물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모아 저널을 발간하는 자료의 보고이기도 하다. 런던동물원도 역사가 오래된 만큼 오래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동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세계 각국 동물원들이 20세기 이후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단순한 동물전시기능에서 교육과 종보전으로, 그리고 동물 복지 등으로 그 역할 또한 꾸준히 진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동물을 위한, 동물에 의한, 동물원으로 씬없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려는 동물원이 아말로 세계 최고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을까.

김보수 서울대공원 동물원기획운영전문관(수의학박사)

보약, 흥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흥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흥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성역

광충간도로

북고당 한약방

세우리병원

한림대병원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